

■ 인터뷰 - 엔리케 두셀을 만나다

김창민 인터뷰
이경민 정리

지난 8월 초에 개최된 세계철학자대회 참석차 방한한 엔리케 두셀(Enrique Dussel)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주최의 <오르비스 테르티우스(Orbis Tertius): 라틴아메리카 석학에게 듣는다>에서 유럽중심적 사유에 대한 현대 라틴아메리카 지성인의 비판적 관점을 소개하여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글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소장 김창민 교수가 8월 7일 엔리케 두셀을 인터뷰한 전문이다. 인터뷰 내용의 일부는 <경향신문> 8월 11자에 소개되었다.

김창민: 선생님은 유럽중심적인 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의 전환에 이르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두셀: 사실 저의 철학은 반(anti)유럽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라틴아메리카인들은 유럽중심적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유럽 철학을 공부하려고 라틴아메리카를 떠나 1957년에서 1967년까지 유럽에서 10여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발견했지요.

제 문제의식은 라틴아메리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중심적 사고와 거리를 뒤야했

지요. 유럽철학은 유럽에 대한 유럽인들의 고유한 철학이니까 말입니다. 대학의 교육 방법은 전적으로 유럽중심적이었죠.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을 위시한 지역의 모든 동료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은 제 자신을, 저를 형성한 모든 것을 비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고, 라틴아메리카를 생각하지 않고 유럽을 모방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생각하고 그 고유한 것에서 철학을 시작하며, 유럽철학을 도구로 삼되, 자신의 고유한 전통을 알고 현실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반(反)유럽주의자가 아니라 반(反)유럽중심주의자(anti-eurocéntrico)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유럽중심적이었으니까요. 제 라틴아메리카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유럽중심적이며,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많은 학자들 또한 그렇지요. 유럽중심주의가 유럽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럽인들은 유럽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중심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유럽중심주의를 흉내 내는 것은 이미 모순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죠.



두셀과 인터뷰하는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소장 김창민 교수

김창민: 이스라엘에서 2년간 목수로 일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한 동기나 철학자로서의 삶에 끼친 영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셀: 제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유럽 철학을 해체하기 위해서였고, 또 유럽 사상의 유일한 근간이 되는 그리스철학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 철학을 헬레니즘중심주의(Helenocentrismo)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중심주의는 유럽중심주의의 어머니죠. 그리스가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럽의 기원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저는 그리스를 비판하기 위해 다른 문화에 대한 언급이 절실했는데, 셈족의 세계가 아주 적합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에 대해 오늘날 회자되는 변증론을 보면 아테네가 예루살렘을 비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히브리어를 배우고, 말하고, 읽고, 또한 바빌로니아, 페니키아의 셈족 사상과 이집트에 남겨진 셈족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헬레니즘 이외의 전통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로선 정신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었죠. 노동자들과 함께 맨손으로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동자로서 매일 8시간을 일하면서 노동과 세상에 대해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때때로 히브리어를 배우고 구사하게 되었고, 이것이 후에 제가 『셈족의 인문주의 Humanismo semita』 (1969)라는 첫 저서를 쓰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것은 제 인생의 결정적 경험이었는데, 무엇보다 정신적 경험이자 사회적, 그리고 이론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김창민: 선생님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1975년 멕시코로 망명을 하셨습니

다. 선생님과 비슷한 시기에 아르헨티나를 떠났던 지식인 가운데 가르시아 칸클리니(Néstor García Canclini), 미놀로(Walter D. Mignolo), 라클라우(Ernesto Laclau)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은데 망명 경험이 선생님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망명 지식인들의 지적인 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두셀: 1961년 이스라엘에서 아르헨티나로 귀국해 1975년 해외로 망명하게 되었는데, 이 14년의 망명생활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로 갔다가 다시 아르헨티나에 돌아와서 군부독재에 맞서 민중운동에 참여하면서 해방철학에 이르게 되었고, 비판적 라틴아메리카 철학을 주창하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 폭탄테러를 당했고 대학에서 쫓겨나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망명 경험은 제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에서 최북단의 아주 다른 나라로 간 것이었으니까요. 멕시코 망명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라틴아메리카는 하나의 통일체처럼 보이지만 철학담론에서는 차이가 심했죠. 철학적 전통이 다르니까요. 멕시코 사상을 관통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멕시코에서의 경험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쿠바, 도미니카공화국과 같은 카리브 해 지역을 비롯하여 산디니스타가 활동했던 중앙아메리카 또한 수차례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에 이처럼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를 두루 다니게 되면서 지적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하신 세 명의 지식인을 알게 되었고, 우리들은[두셀, 가르시아 칸클리니, 미놀로, 라클라우 모두 아르헨티나 출신이다]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에 맞서 민중운동을 하게 되었지요. 그들과 저는 민중을 존중하며, 그러기에 모두가 자신의 사

상에 민중적 테마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놀로, 가르시아 칸클리니, 라클라우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말이지요.

김창민: 한국에서 해방신학은 상당히 소개되었지만 해방철학은 낯섭니다. 해방철학과 해방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두셀: 해방신학과 해방철학은 196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그 출발점은 종속이론이며, 독재에 대항한 민중의 참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신학은 교회라는 더 강력한 제도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방철학은 대학의 산물입니다. 가령, 독재 정권에서 국립대학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해방철학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해방철학 담론은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영향을 받아 천천히 구축되었고, 오늘날에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방신학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담론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아프리카에서도, 인도에서도, 한국에서도 고유의 담론을 만들어냅니다. 해방철학은 기본적으로 철학운동이기 때문에 해방신학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해방철학이 해방신학보다 더 지속적이라고 봅니다.

해방철학도 해방신학처럼 억압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가난한 자와 여성, 성의 문제도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또한 인종적 지배와 노동자 계층에 대한 억압, 원주민과 소외계층, 그리고 노인과 아동에 대한 억압에 대해 생각해야 하겠지요. 그럼으로써 해방철학은 모든 종류의 억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방철학은 새로운 철학이자 라틴아메리카의 독창적 철학입니다. 그 외의 철학은 모두 모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고유 사상을

논한 레오폴도 세아(Leopoldo Zea) 같은 멕시코 철학자도 있었지만 그는 철학사를 연구한 학자일 뿐입니다. 해방철학은 그야말로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철학입니다.

김창민: 그렇다면 해방신학과 해방철학이 같은 노선으로 합쳐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두셀: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지만, 토대가 다릅니다. 해방신학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토대이고 해방철학은 철학자들의 토대이지요. 방법론 또한 다릅니다. 전자는 신앙과 신학적 전통에서 출발하고, 후자는 철학, 논리학, 현상학 등에서 출발하며 또한 마르크스주의를 이용합니다. 해방철학은 철학입니다.

김창민: 세계사에서는 콜럼버스의 항해를 보통 신대륙 ‘발견’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발견’이 아니라 ‘은닉(encubrimiento)’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셀: 1992년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을 축하하는 해였죠. 그때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1492년. 타자의 은닉』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죠.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곳이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시아에 있다고 믿었지요. 현상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콜럼버스는 결코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아메리코 베스푸치오 역시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볼 수 없습

니다. 발견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유럽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메리카의 모든 정신세계(mentalidad)를 대상화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을 원주민으로 보지 않았죠. 유럽인이 그린 원주민을 보면 아프리카적이면서 동양적인 묘한 환상이 묻어나지요. 이것은 원주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상상력으로 원주민을 ‘은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현인과 사제를 비롯해 모두 죽였기 때문에 그 세계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은닉’된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아메리카인은 이미 아메리카에서 살고 있었고, 따라서 아메리카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이겠죠.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는 것을 발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유럽중심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도착하면 발견이고, 이미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발견한 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것은 발견이 아니라 침략입니다. 유럽의 입장에서선 발견이겠지만, 원주민 입장에서선 유럽인의 침략이지요. 책 내용엔 유럽이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믿고 있지만 아메리카를 은닉했다는 점, 그리고 원주민들은 침략을 당해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졌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책의 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492년은 발견이 아니라 침략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메리카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지요. 유럽인들이 우리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다면 원주민들이 했던 건 대체 뭐가요.

김창민: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를 유럽 학자들보다 먼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포스트모던 개념과 바티모(Gianni Vattimo)나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셀: 그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고 존재론적인 위치에 대한 모더니티에 대한 첫 비판은 하이데거였습니다. 하이데거가 데카르트, 즉 ‘나’라는 근원과 모더니티를 비판하였죠. 그는 ‘나’ 이전에 세계가 선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근대적 사고를 비판하는데, 저는 모더니티를 비판하면서 그 점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이데거처럼 유럽의 보수적 견지에서 탈피하여, 식민세계에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제게 포스트모던은 모던 이후에 오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생각했죠. 저는 항상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주변부를 사고합니다. 그런데 유럽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과 함께 포스트모던의 파노라마가 주변부가 아니라 유럽에 위치하게 됐죠. 따라서 포스트모던 개념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전에 제가 언급했던 포스트모던의 의미가 사라졌으니,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바꿔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포스트모던이라는 것을 모더니티에 반하여 주변부에서 나온 담론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유럽과 미국에서 출현하게 되었지요. 유럽에서 나온 모더니티 비판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비판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영향을 주지도 못한 채 회의주의에 빠져버렸죠. 따라서 제겐 유럽의 포스트모더니티라는 개념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모던’(transmodern)이라는 개념으로, 주변부에서 생성된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민: 포스트모더니티와 트랜스모더니티는 어떻게 구별되는지요?

두셀: 제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티는 모더니티의 지배적 이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변부에서도 유효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럽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랜스모더니티는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 세계적인 이성, 다중우주적(pluriversal) 이성에 입각한 모더니티 비판입니다. 트랜스모더니티는 우선적으로 고유한 것(lo propio)을 찾아내고, 그것의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로부터 모더니티를 비판하며 모더니티와 대화할 수 있는 보편 이성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외부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월터 미놀로는 그것을 미래적 다중우주(un pluriverso futuro)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다중우주는 새로운 모더니티나 다중적(복수적) 모더니티가 아니라 모더니티 이후의 나타나는 뭔가 새로운 문명으로서 차별성을 보일 것입니다.

김창민: 사파티스타, 우고 차베스, 룰라, 에보 모랄레스 등과 관계된 사회운동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시오.

두셀: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1960년대부터 출현하였습니다. 해방철학도 때를 같이하여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운동에 파고들었죠. 1984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성격이었죠. 이때 사회운동은 약간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군부라는 적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시작됐으니깐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사회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부를 자본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2008년 8월 6일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에서 강연하는 엔리케 두셀 (Enrique Dussel) 교수

접어들면서 또다시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엔 군부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정부에 대항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운동으로 라틴아메리카에 좌파 정부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최근의 좌파정부는 그러한 환경에서 선택된 것입니다. 칠레의 바첼레트,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우루과이의 타바레 바스케스, 브라질의 룰라,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파라과이의 루고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알란 가르시아 페루대통령도 보수적이지만 그렇다고 우파도 아니죠. 에콰도르의 라파엘 오르테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파나마의 마르틴 토리호스 에스피노 대통령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

부는 민중운동을 표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민중운동은 라틴 아메리카 정치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철학을 건설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표출되었고 수많은 사회운동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으며, 이내 정치의 빛으로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민: 그렇다면 그러한 사회운동이 정치철학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셀: 정치철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정치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정당,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민중적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철학이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하자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쇠락한 뒤에 남은 이론은 없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에는 정립된 이론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론을 신뢰하지 않는 반(反)이론적 태도도 있습니다. 이는 이론이 유럽중심적이라서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론을 생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도 그 행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철학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창민: 사회운동에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지난해 멕시코에서 언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자의 존재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억압적 지도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셀: 사람들은 지도자를 갖는 데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허나 사회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갖는 걸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지도력을 빼앗기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운동엔 지도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툴라도 지도자이며, 파라과이의 루고도 지도자입니다. 에보 모랄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문제는 지도력의 실행에서 민주적 조건을 모색할 줄 아는가입니다. 히틀러나 페론, 바르가스 같은 파시스트적 조합주의 지도자는 되지 말아야겠죠. 지도자는 에보 모랄레스처럼 민주적 지도자여야 합니다. 우고 차베스도 민주적 지도자라 할 수 있겠죠. 그는 선거에서 패배한 바 있고,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저는 그 실패가 우고 차베스에게 승리보다 큰 힘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베스는 민주적입니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그런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는 좌파가 결코 이론화하지 못했던 지도자입니다. 레닌, 마오쩌둥, 호치민 이들 모두가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도력의 이론이 생산된 것은 아니었죠. 그 이론 또한 생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민: 최근 10년 동안 선생님의 관심사였던 정치철학의 핵심은 무엇인지요?

두셀: 모든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민중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이 정치철학입니다. 권력의 원천으로서 민중,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람시가 언급하듯, 민중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사회적 블록입니다. 그는 권력에서의 역사적 블록, 즉 지배계급의 블록에 대해서도 말하지요. 하지만 피억압자들은 역사적 블록이 아닌 사회적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피억압자들의 블록은 결속력 강한 단위가 아니라 순간순간 결속하는 단위(unidad coyuntural)입니다. 그것이 민중입니다. 민중은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엔 흩어져버리기도 하지요. 민중은 물체가 아니라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프롤레타리아와 같은 역사적 주체입니다. 소산되는 연합체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민중은 정치적 개념으로서 사회운동의 목적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헤게모니 기획을 만들어내고, 그 기획이 달성되었을 때 투쟁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는 투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북미 제국주의와 가난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이죠. 여성해방,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 생태보존 등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조금씩 기획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중이고 민중이 권력의 근거지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정치론이겠지요. 또한 민중은 제도가 있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민중이 우선적으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볼리비아처럼 개헌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곳에선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곧 헌법 개정 투표가 있을 것이고, 베네수엘라에선 이미 승인되었지요. 이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을 요하며 그 시간에 민중은 정치의식을 갖게 됩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정치의식을 갖는다면 라틴아메리카는 분명 바뀔 것입니다. 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라틴아메리카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그 길에 있습니다.

김창민: 오늘날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선생님의 정치철학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셀: 저는 정치철학을 후대에 사람들이 추종하게끔 하기 위한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 과정의 앞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저는 앞서가는 예언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그것을 밝혀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매우 기능적이라고 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 눈엔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 이것이 이론의 기능입니다. 진정한 정치이론은 현재적 경험에서 나오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의 경험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론입니다.

김창민: 이번 한국 방문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한국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요? 이번에 참가한 철학자대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두셀: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한국 컬렉션 6권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철학의 최초 역사는 트랜스모더니티의 선상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식민적 변방의 모든 국가와 대륙은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인 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교와 불교 등 다양한 사상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불교처럼 한국에서 발전된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관련 도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계철학자대회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유럽 밖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철학을 긍정하려 했을 때, 유럽과 미국은 이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강요당하는 위치에 있었잖습니까, 그렇지요? 따라서 이번 세계철학자대회는 철학 역사의 21세기에 중요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잇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김창민: 한국의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이 라틴아메리카 사회나 사유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셀: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한국간의 대화는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포르투갈 철학자 부아벤투라 데 소우사(Buaventura de Sousa Santos)가 지적하듯, 번역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라틴아메리카의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의 것을 라틴아메리카에서 번역해야 합니다. 라틴아메리카연구자는 한국의 민중일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을 정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틴아메리카에게 한국은 엄청난 과학기술적 근대화의 모범이며, 그러한 면에서 라틴아메리카보다 훨씬 진보해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예를 들어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을 강하게 긍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근대화를 빨리 이룩한 반면 역사나 정체성 회복에 있어서는 뒤쳐져 있다고 봅니다. 역사나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연구자는 번역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하며, 민중의 단합이라는 큰 과제를 지고 있습니다.



엔리케 두셀 홈페이지(<http://enriquedusel.org>). 영어와 스페인어로 저서, 논문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민: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주요 저작의 원문을 무료 서비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동기나 계기가 있는지요?

두셀: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저의 모든 저작들은 완전히 절판되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구할 수 없는 책이 되었지요. 아무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고립되었다고나 할까요. 책을 구하고 싶어도 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문서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모든 텍스트를 수정하면서 조금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아직 작업하지 못한 글도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400편정도 되는데, 100편 정도를 편집하여 공개하고 있

습니다. 작업을 좀더 진행해야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CD로 만들었는데 판매용이 아니었죠. 이를 6, 7 개월 전에 웹 사이트에 올렸습니다만, 아직 제 저작들은 도서관에 있습니다. 제 웹 사이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 책이 읽히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작품에 대한 토론으로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현재 모든 글이 공개되고 있어서 어떤 연구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네다섯 권의 책을 구하기 위해 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모든 것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용이하지요. 컴퓨터가 출판본보다 낫습니다. 제 글에서 니체가 몇 번 인용되는지, 그것까지 알 수 있으니까요. 엄청난 도움이 되죠. 인쇄본보다 훌륭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자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최근의 책들은 아직 판권의 문제가 있어 출판사에 잡혀 있지만 차츰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의 모든 저작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창민: 장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